

The Economy

LS Edge

Investment Strategy | 투자코멘트 | 2026. 9. 2

8월 한국 수출: 여전히 견조한 반도체

해외채권/크레딧 | 박지빈 | jibin@ls-sec.co.kr

수출증가율 예상치 상회

8월 한국 수출은 +68.7%YoY 증가한 982.5억달러를 기록하며 시장 예상(+62.6%)을 상회했다. 조업일수가 전년 동월대비 0.5일 적었음에도 일평균 수출은 44.7억달러로 +72.5% 증가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수입은 +22.5% 증가한 635.1억달러로 시장 예상(+24.7%)을 하회했고, 무역수지는 347.5억달러로 흑자폭을 확대했다. 7월과 비교하면 전체 수출액은 소폭 감소했으나 가파른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수출 모멘텀 자체는 견조한 것으로 평가된다

반도체 중심의 수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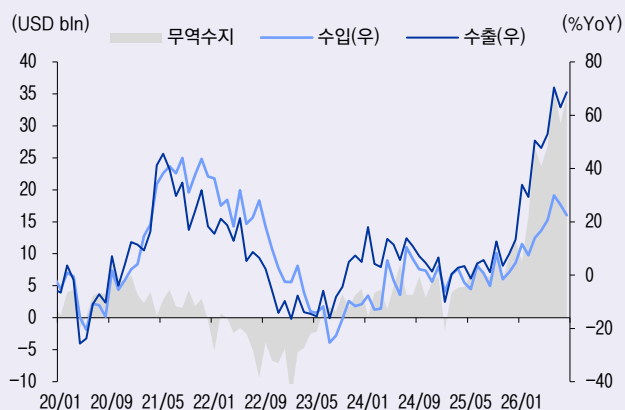
반도체 수출은 466.5억달러로 209%YoY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컴퓨터(62.4억달러)는 SSD 수요와 NAND 가격 상승에 힘입어 419.5%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면 자동차(-29.8%)는 하계휴가 시점 이동에 따른 기저효과와 부분 파업에 따른 일부 생산차질로 부진했으며, 선박(-45.9%)은 인도물량 감소로 하락 전환했다. 석유제품(+65.3%)과 석유화학(+12.2%)도 증가했지만, 실제 수출물량은 -2.2%, -7.0% 감소해 유가 상승에 따른 단가 효과가 컸다는 점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지역별로는(8/25까지) 중국(+119.3%)·미국(+89.3%)·아세안(+75.4%) 수출이 큰 폭 증가했다. 對중국 수출은 반도체(+320%)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며 상승폭을 확대했고, 對미 수출도 자동차가 감소했지만 반도체(+300%)·컴퓨터(+1,040%)가 급증하며 전체 수출을 견인했다. 아세안은 반도체뿐 아니라 석유제품·디스플레이도 증가하며 8월 기준 역대 최대 수출을 기록했다. 對EU 수출은 자동차 생산 감소와 철강에 대한 EU TRQ 도입 영향으로 자동차·철강 수출이 부진하면서 +55.6%→+14.6%로 둔화되었다.

9월 증가율은 일시 둔화 가능

AI 투자 확대와 메모리 공급 부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지난해 10월이었던 추석이 올해는 9월에 위치하면서, 조업일수 감소가 반도체 수출 호조를 일부 상쇄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헤드라인 수출증가율은 둔화될 수 있으나, 반도체 업황 자체가 견조한 가운데 높은 수출액 수준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출 모멘텀 약화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림1 수출·입 증가율과 무역수지



자료: CEIC,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반도체 수출은 여전히 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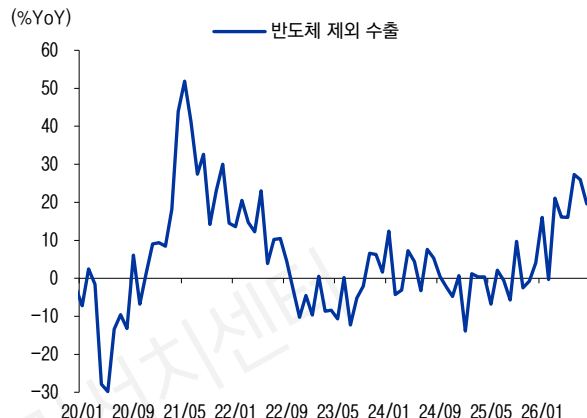
자료: CEIC,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반도체의 수출 비중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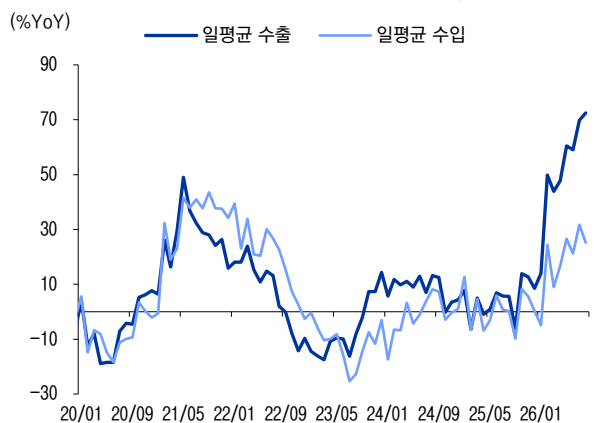
자료: CEIC,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반도체 제외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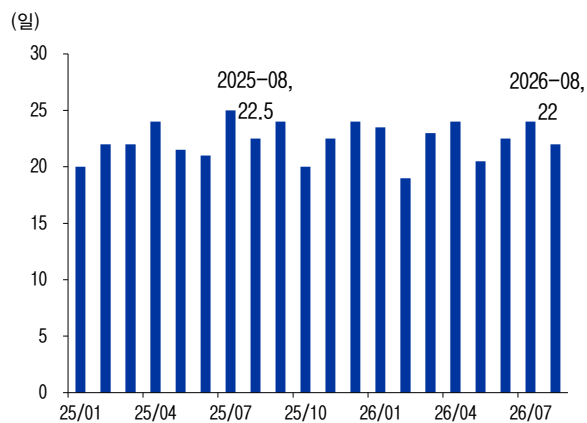
자료: CEIC,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조업일수 감안한 일평균 수출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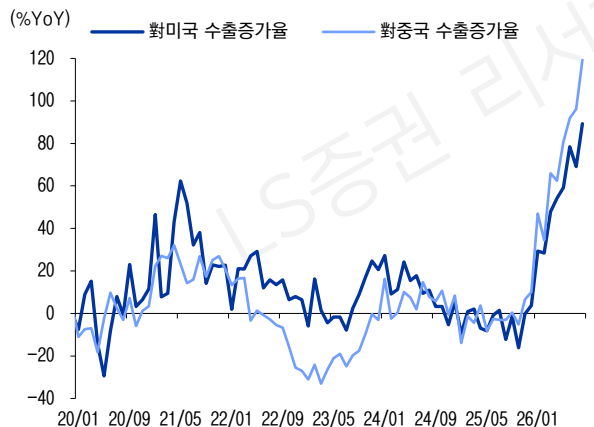
자료: CEIC,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조업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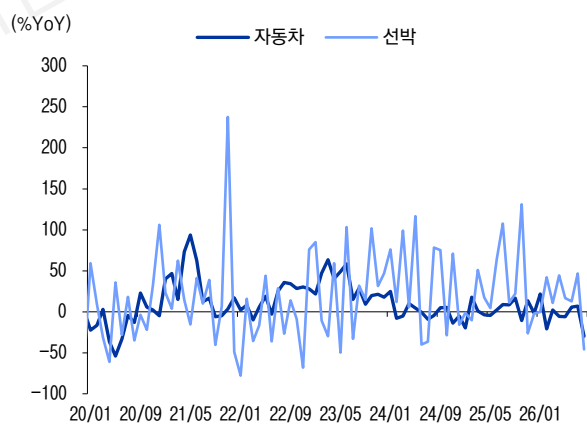
자료: CEIC,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 중국·미국향 수출



자료: CEIC,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8 자동차·선박 수출증가율 (-) 전환



자료: CEIC, LS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박지빈).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